정부, 산업용 섬유에 285억원 지원

정부가 지반보강용 진공배수재 및 자동차 안전벨트를 포함한 산업용 섬유 개발에 285억원을 지원한다.
지식경제부는 2010년 섬유 · 패션 협력기술 사업과제 46개를 선정해 285억원을 지원한다고 6월15일 발표했다.
섬유 · 패션 스트림 간의 협력기술사업은 원료, 원사, 직물, 염색, 봉제, 패션 등 단위 공정(스트림)을 아우르는 컨소시엄에 공동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.
2010년에는 섬유 · 패션분야 27개 신규과제에 135억원, 19개 계속과제에 150억원을 지원한다.
신규과제로는 한국섬유개발원구원이 주관하는 연약지반보강용 진공배수재 개발와 내오염성 자동차 내장재, 고성능 안전벨트 개발 등 산업용 섬유 개발과제 5건이 선정됐다.
또 셀룰로오스(Cellulose), 레이온(Rayon) 복합소재를 이용한 고감성 의류제품과 스포츠웨어 개발과제 7건, 헬스케어용 침장류 등 생활용 섬유제품 개발과제 3건이 뽑혔다.
지경부는 2010년 과제의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7년에 연간 2조7000억원의 매출과 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0/6/28>